

여수시, 섬박람회·민생경제 회복 ‘투트랙 시정’ 가동

내년 예산 1조4천825억...올해비 2억 ↑
석유화학 산단 구조재편·신산업 육성
‘남해안 거점 미항’ 도약...관광·문화속도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 해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4천825억원(일반회계 1조3천555억원·특별회계 1천27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했다.
정 시장은 연설에 앞서 올 한 해 성과로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여수사랑상품권 발행(1천355억원)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 선정 ▲각종 SOC 및 관광단지 지정(돌산 신북-우두 간 도로 확장 예타 선정, 무술목 관광단지, 백리섬섬길 국가 관광도로 등)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시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을 위한 8대 핵심 시정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행사장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금오도·개도 부행사장은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임시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계속 추진한다.

미래혁신지구를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의 거점으로 삼고,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과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여수문화재단을 상반기 중 출범시키고 전라좌수영성 복원, 여수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본격화한다. 여자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만흥동 섬-잇 트레일,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기후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COP33 유치를 비롯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국가산단 에너지 자급 인프라 구축과 CCUS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맞춰 ‘여수형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정 전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청년 활력도시 조성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정기명 시장은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2천5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내년 고향사랑기금 핵심사업 4건 ‘확정’

설문 토대...쉼터·임신부 지원 등
조정 경기정 지원 기부 모금 병행

장성군이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할 4대 핵심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부서별 제안 등을 통해 총 83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군민과 일반인, 기부자 등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향사랑 감동쉼터’ 조성 ▲맘(mom) 든든 임신부 케어 서비스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조정 골나무 경기정 지원 등이다.
먼저 ‘고향사랑 감동쉼터’는 보행로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군민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설치 장소와 디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과 산모 복지 향상을 위한 ‘맘 든든 임신부 케어 서비스’는 지역 내 임신부 130여 명에게 1인 최대 30만원 한도로 청소, 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자원봉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군정 필수사업으로 분류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조정 골나무 경기정 지원’은 지역 중·고교 조정선수단에 경기정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목표 금액 1억7천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지정기부 모금에 들어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과 기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선정한 만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군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2건의 유산에 대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고유역사 담긴’ 문화유산 12건 발굴 체계적 관리 나선다

건축물·전적·고문서 등...다양성 확보
보성군이 지역 곳곳에 숨어있던 소중한 문화유산 12건을 새로 발굴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에서 신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2025년 향토문화유

산 발굴 사업’을 추진해 미등재 유산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였다.
이후 9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와 2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총 12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돼, 지역 문화재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2017년 12건, 2024년 10건에 이어 올해도 12건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여전히 풍부함을 입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각 유산에 담긴 고유한 역사를 발굴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의 자산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광주 석곡천 상습 침수 공동 대응해야”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지방하천 정비 시급성 ‘피력’

정철원 담양군수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인접 지자체 간 재해 예방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제9차 정례회’에서 정 군수는 담양군의 현안 해결과 4개 지자체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김종화 광주 북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광주 북구와 인접한 석곡천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의 시급성을 피력하며,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담양군은 매년 우기마다 반복되는 석곡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등 선제적인 수해 예방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철원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 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담양군과 광주 북구·광산군, 장성군이 공동 발전을 목표로 발족한 협의체다. 이들은 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공동체 사업단 농기계 안전교육

구례군은 “최근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동체 사업단 농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2025년도 공동체 사업단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과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기본 안전 수칙 ▲빈번한 사고 사례 ▲고령자 사고 예방 요령 등이다.

특히 트랙터와 관리기 등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종을 중심으로 실제 사고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를 도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공동체 사업단 활동에서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시네마,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영화관 새단장

3천만원 투입 다화용기 시스템 도입
세척 시설 설치...26일까지 임시 휴관

화순군이 운영하는 화순시네마(사진)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새단장한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다화용기 사용 확대와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중 화순시네마에서 ‘일회용품 없는 작은영화관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영화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도비 3천150만원을 투입해 팝콘·음료 용기 등을 다화용기로 교체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식기세척기와 소독기 등 세척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화순시네마는 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는 오는 26일까지 임시 휴관하며, 정비를 마친 후 재개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람객들이 불편 없이



다화용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시네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지역의 자원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 전국 첫 ‘노점 카드결제 서비스’ 선포

도우미가 단말기 들고 ‘찾아가는 결제’
도입 첫날 기차마을시장 매출 1천만원

곡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가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과 상인회가 협력해 노점의 구조적 한계인 카드 결제 불가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모델을 본격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인회 소유의 카드 단말기를 ‘전통시장 버스 도우미’가 휴대하고 시장 곳곳을 다니며 노점상 대신 결제를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노점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다.
지난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곡성군 전

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시기에 맞춰 본격화된 이 서비스는 즉각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실제 서비스 도입 후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단 하루 만에 노점 매출 1천만원을 달성했으며, 옥과·석곡 전통시장도 각각 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자 방문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상인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군은 향후 결제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노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행정과 상인회의 긴밀한 협력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